

『醫學入門·傷寒篇』類傷寒 病症 10종의 유래와 개념에 대한 연구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조학준 *

Provenance and Concept of 10 Symptoms of Para-cold Damage(類傷寒) from *Yixuerumen*(醫學入門)

Jo Hak-jun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provenances of 10 Symptoms of Para-cold damage from *Yixuerumen*, and discovers the rationality and originality of para-cold damages recognized by Li Chan.

Methods : The paper looks through the books referenced by *Yixuerumen* to investigate the source text for *Yixuerumen*'s Para-cold Damage chapter, and the contents of the referenced books will be compared to that of *Yixuerumen*.

Results : The sources of the 10 symptoms of para-cold damage from *Yixuerumen* Chapter of Cold Damage can be traced to *Leizhenghuorensu* (expectoration, indigestion, rising temperature due to lack of energy, and beriberi), Wang Zhen's *Shanghanzhengzhimingtiao·Xinzenxuleishanghansizheng*(the infection in a boil, blood satts, caused overexertion, and pox), and Liu Chun's Yujiweiyi's chapter on Common Cold. Here, Li Chan made his own addition of internal damage and damage of overworking. Li Chan seems to have considered para-cold damage not as a type of cold damage but as a "concept relative to the broader range of cold damage." In reflection of this understanding, Li Chan limited the number of categories to ten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al trace leading from *Leizhenghuorensu* to *Shanghanzhengzhimingtiao*. When we understand para-cold damage as a "concept relative to the narrower range of cold damage," it could be used as a mean as for "Wenbin diagnosis," but *Yixuerumen*'s para-cold damage is only utilized for the "diagnosis of a broader concept of cold damage."

Conclusions : Li Chan deserves credits for his academic rationality and originality displayed by the method he used to form para-cold damages where he used real cold damage and para-cold damage as principles, by the division of para-cold damage symptoms into ten provenances, by the creation of the concept of para-cold damage, and by his broad collection of prescription and treatment corresponding to each type.

Key Words : Para-cold damage, Para-cold damage symptoms, Provenance, Concept, *Yixuerumen*(醫學入門)

I. 서론

『醫學入門傷寒篇』은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의 조목과 그 조목에 각각 대응되는 처방이 실려 있는 「傷寒用藥賦」로 구성되어 있다.

『醫學入門』의 저자인 李梴은 그 중 「類傷寒」에 대해 전문적인 조목(「類傷寒」)을 따로 두었는데, 특히 「類傷寒」을 『醫學入門傷寒篇』에 두었다는 점에서 類傷寒을 傷寒의 일종으로 인식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인식한 類傷寒은 傷寒과 비슷하다거나¹⁾ 傷寒이 아니라²⁾ 정의와 잘 맞지 않는 듯하다.

또한 類傷寒 病症은 총 37종³⁾ 또는 총 55종⁴⁾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나, 李梴은 類傷寒 病症으로 10종(虛煩, 脚氣, 食積, 痰飲, 瘡毒, 瘀血, 勞發, 痘疹, 外感感冒, 內傷勞傷)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지금까지 『醫學入門』 중 「傷寒篇」에 대한 연구가

간간히 이루어져 김 등⁵⁾과 김⁶⁾이 각각 「六經」과 「初證」의 인용서를 비교한 바가 있고, 조⁷⁾가 『醫學入門』 正傷寒의 기원과 변화를 고찰한 바가 있다.

김상운⁸⁾은 類傷寒의 기원을 朱肱의 『類證活人書』로 보고 類傷寒 소속 病症을 唐代부터 清代까지 수집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한 바가 있고, 중국에서 陳寶蒼⁹⁾은 類傷寒의 명칭, 소속 病症에 대해 『傷寒論』의 역대 注釋書와 『金匱要略』을 통해 개략적으로 고찰하였고, 朱小靜¹⁰⁾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類傷寒으로 간주되는 증상과 치료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陳寶蒼은 類傷寒이 후세에 『活人書』, 『金匱要略』의 두 가지 계열로 발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醫學入門傷寒篇』의 類傷寒 病症 10종의 기원을 살펴보고, 類傷寒의 발달과정에서 『醫學入門傷寒篇』의 「類傷寒」이 계통성이 있는지를 조명하며, 李梴이 인식한 類傷寒의 개념과 소속 病症 10종의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醫學入門』의 학술성파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類傷寒의 개념, 소속 病症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하리라 기대한다.

II. 자료

본 논문에서 다룬 자료는 『醫學入門』 『集例』에서 제시한 傷寒의 인용서적(『傷寒六書』, 『傷寒論注』, 『南陽活人書』, 『傷寒百問歌』, 『傷寒百證歌』, 『王氏家寶』, 『仁齋直指』 등)과 「傷寒篇·仲景張先生傷寒纂要」에서 제시한 傷寒의 인용서적(『傷寒論』, 『傷寒百問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조학준.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진외과학교실.

Tel : +82-43-649-1347. Fax : +82-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Received(27 October 2016), Revised(14 November 2016),

Accepted(15 November 2016)

- 1) 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10. NAVER 검색. [Cited at 4 Jul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2312&cid=51276&categoryId=51276> “병증상이 상한(傷寒)과 비슷한 병증. 동온(冬溫) · 온병(溫病) · 습온(濕溫) · 광란(霍亂) · 경(瘧) · 상식(傷食) · 담음(痰飲) · 각기(脚氣) · 내옹(內癰) · 축혈(蓄血) 등 증은 모두 오한이 있고 열이 나는 것이 상한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사한이라고 한다.”
- 2) 한국전통지식포털. [Cited at 4 Jul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7769> “傷寒病이 아닌 데도 傷寒과 같이 열이 나는 질환”
- 3) 김상운.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3. 17(3). p.213.
- 4) 陳寶蒼. 類傷寒의 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5) 김경식, 조학준, 김정범. 『醫學入門傷寒篇』 중 「六經」條의 引用書와 내용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2). pp.59-85.
- 6) 김상운. 『醫學入門傷寒篇』 중 「初證」의 引用書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 pp.87-112.
- 7) 趙學俊. 『醫學入門傷寒篇』編制 中 正傷寒의 명칭, 병명분류의 기원과 그 후 변화.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2).
- 8) 김상운.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3. 17(3). pp.203-214.
- 9) 陳寶蒼. 類傷寒의 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10) 朱小靜. 『傷寒雜病論』中類傷寒病證治의 研究. 河北醫科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歌』, 『傷寒百證歌』, 『南陽活人書』, 『傷寒六書』, 『王氏家寶』)과 비록 『醫學入門·傷寒篇』의 인용서적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醫學入門』「集例」에서 언급한 서적 중 類傷寒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서적과 「傷寒篇仲景張先生傷寒纂要」에서 언급한 ‘各名家’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서적(龐安時的『傷寒總病論』, 許叔微의『傷寒九十論』, 郭雍의『傷寒補亡論』, 明代陶節菴의『傷寒全生集』 등)과 『活人大全』일 가능성이 있는 서적(『傷寒圖歌活人指掌』,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을 포함하였다.

자료로 사용된 서적을 成書 시기와 저자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시대순서로 나열하면 Table 1과 같다.

Ⅲ. 본 론

李梴은 「類傷寒」의 말미에 類傷寒의 名義를 논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만 類傷寒 病證에 대

해 옛날에 痰飲, 虛煩, 脚氣, 食積, 瘡毒, 瘀血, 勞發, 痘疹의 8종에 다시 外感의 感冒와 內傷의 勞傷 2가지를 새로 더하면서 百病이 모두 類傷寒이라¹¹⁾고 하여 類傷寒에 속하는 病症을 언급하였을 뿐, ‘類傷寒’의 개념과 類傷寒 病症 10종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醫學入門·傷寒篇』의 類傷寒 病症 10종이 어떤 서적들로부터 유래하였는지 살펴보고, 類傷寒에 대한 李梴의 개념을 다른 서적과 비교, 분석해 본다.

1. 『醫學入門·傷寒篇』 類傷寒 病症(10종)의 유래

類傷寒 病症이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탐색함으로써 『醫學入門』 類傷寒 病症 10종이 어느 서적에서 유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陳寶蒼은 類傷寒 病症의 발달 모델을 서적을 기

Table 1. Reference books in *Yixuerumen* concerned with para-cold damage

	서명	저자	연도		서명	저자	연도
1	傷寒論	張仲景	150-219	19	醫壘元戎	王好古	1291
2	金匱要略	張仲景	150-219	20	永類鈴方	李仲南	1331
3	肘後百一方	陶宏景	452~536	21	世醫得效方	危亦林	1277-1347
4	諸病源候論	巢元方	610	22	傷寒圖歌活人指掌	吳恕	1337
5	備急千金要方	孫思邈	652	23	丹溪治法心要	朱震亨	1279-1368
6	太平聖惠方	王佑 등	992	24	丹溪心法	朱震亨	1347
7	注解傷寒論	成無己	1063-1156	25	金匱鉤玄	朱震亨	1358
8	太平惠民和劑局方	陳師文 등	1078-1085	26	證治要訣	戴原禮	1324-1405
9	類證活人書	朱肱	1108	27	袖珍方	朱櫨	1391
10	傷寒總病論	龐安時	1110	28	玉機微義	劉純	1396
11	聖濟總錄	趙佶	1111-1117	29	傷寒全生集	陶華	1369-1463
12	傷寒九十論	許叔微	960-1279	30	傷寒六書	陶華	1445
13	傷寒百證歌	許叔微	960-1279	31	名方類證醫書大全	熊宗立	1446
14	傷寒百問歌	錢聞禮	1131-1162	32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熊宗立	1447
15	傷寒補亡論	郭雍	1181	33	傷寒證治明條	王震	明代
16	傷寒直格	劉完素	1186	34	古今醫統大全	徐春甫	1556
17	儒門事親	張子和	1156-1228	35	醫學入門	李梴	1575
18	仁齋傷寒類書	楊士瀛	1264				

Table 2. Developing affiliations of symptoms of para-cold damage

번호	발달 계열 書籍	類傷寒 病症				종수		
		類證活人書	傷寒證治明條	金匱要略	기타 계열(혼합형)			
1	傷寒論 ¹²⁾	-	-	-	形作傷寒	(1)		
2	金匱要略 ¹³⁾	-	-	瘧,濕,喝,霍亂	-	(4)		
3	肘後百一方 ¹⁴⁾	-	-	-	飲酒後諸病	1		
4	諸病源候論 ¹⁵⁾	-	-	-	卒食病,蚘瘵,妊娠溫病,小兒變蒸,小兒時氣病,小兒天行發黃,小兒時氣腹滿,時氣結熱,敗時氣病,時氣病兼瘧,時氣病得吐下後猶熱	12 飲酒後諸病		
5	備急千金要方 ¹⁶⁾	虛煩	-	-	溪毒證	小兒變蒸	3	
6	太平聖惠方 ¹⁷⁾	-	-	-	小兒瘡疹	-	1	
7	注解傷寒論 ¹⁸⁾	-	-	-	-	-	0	
8	太平惠民和劑局方 ¹⁹⁾	虛煩	-	-	-	-	1	
9	類證活人書 ²⁰⁾	三證	虛煩	-	-	腎傷寒	5	
10	傷寒總病論 ²¹⁾	虛煩	-	-	瘧,濕,喝	-	4	
11	聖濟總錄 ²²⁾	虛煩	-	-	破傷風,狐惑症,咽喉腫痛,乳石症,水毒,瘴氣	小兒瘡疹	8	
12	傷寒九十論 ²³⁾	-	-	-	寒熱往來	-	1	
13	傷寒百證歌 ²⁴⁾	四證	-	-	-	-	4	
14	傷寒百問歌 ²⁵⁾	四證	-	瘧	溫疫	小兒瘡疹	7	
15	傷寒補亡論 ²⁶⁾	三證	虛煩	瘡毒	瘧,濕,喝,霍亂	蟲毒,溪水,瘴霧,酒病,溫瘧,小兒瘡疹	15	
16	傷寒直格 ²⁷⁾	-	-	-	-	-	0	
17	儒門事親 ²⁸⁾	-	-	-	-	內傷	1	
18	仁齋傷寒類書 ²⁹⁾	四證	-	-	-	-	4	
19	醫壘元戎 ³⁰⁾	-	-	-	-	虛寒(妊娠疾病)	1	
20	永類鈴方 ³¹⁾	四證	-	-	斑疹	小兒疹毒	6	
21	世醫得效方 ³²⁾	痰證,虛煩	(小兒)痘疹	瘧(瘧)	小兒變蒸	-	5	
22	傷寒圖歌活人指掌 ³³⁾	四證	-	-	-	-	4	
23	丹溪治法心要 ³⁴⁾	-	-	-	-	雜症	1	
24	丹溪心法 ³⁵⁾	-	-	-	-	雜症,小兒瘡疹	2	
25	金匱鉤玄 ³⁶⁾	-	-	-	-	內傷發斑	1	
26	證治要訣 ³⁷⁾	脚氣	-	-	-	妊娠傷食	2	
27	袖珍方 ³⁸⁾	脚氣	-	-	-	虛熱	2	
28	玉機微義 ³⁹⁾	四證	-	-	-	感冒,時行,寒疫,風溫	溫瘧	9
29	傷寒全生集 ⁴⁰⁾	四證	瘀血	中濕,中喝	溫毒,中風,傷風,風濕,中暑,濕溫	溫疫,溫瘧,風溫	16	
30	傷寒六書 ⁴¹⁾	四證	-	-	-	-	4	
31	名方類證醫書大全 ⁴²⁾	四證	-	-	-	-	4	
32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 ⁴³⁾	四證	-	瘧(瘧)	-	-	5	
33	傷寒證治明條 ⁴⁴⁾	四證	瘡毒,瘀血,勞發,痘疹	-	-	-	8	
34	古今醫統大全 ⁴⁵⁾	四證	-	-	濕溫	-	5	
35	醫學入門 ⁴⁶⁾	四證	瘡毒,瘀血,勞發,痘疹	-	外感感冒	內傷勞傷+行尸,大頭腫	10+2	

- 1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36.
- 12)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86.
- 13) 張仲景. 金匱要略方論(『仲景全書』 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352-357.
- 14) 金禮蒙. 醫方類聚(vol. 7).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741. 재인용.
- 15)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708, 737, 790, 848, 870, 876, 877.
- 1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3).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133, 308, 360.
- 17) 王佑. 太平聖惠方.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 18)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 19)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9).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06.
- 20)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177. pp.234-235.
- 21) 龐安時. 傷寒總病論(朱肱龐安時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62, 173.
- 22)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40, 625, 657, 2073, 2431, 2740, 2973.
- 23) 許叔微. 傷寒九十論(許叔微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6.
- 24) 許叔微. 傷寒百證歌(許叔微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4-15.
- 25)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中國書店. 1991. p.4(卷一), p.1, 3, 6(卷三), p.21(卷四). 이 책은 본래 현대적인 페이지 표기가 없기에 부득이 목차를併記함.
- 26)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p.23, 24(卷十七), pp.9-15(卷十八), p.2(卷二十). 이 책은 본래 현대적인 페이지 표기가 없기에 부득이 목차를併記함.
- 27) 劉完素 著. 陳桂杓 註釋. 傷寒直格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中).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297-332.
- 28) 張子和. 儒門事親(張子和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4, 39, 132.
- 29) 楊士瀛. 仁齋傷寒類書(楊士瀛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462-463.
- 30) 王好古. 醫壘元戎(王好古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304.
- 31) 李仲南. 永類鈴方(海外回歸中醫古籍善本集粹 vol.21).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80, 427, 446, 906.
- 32)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8, 74, 75, 362, 358.
- 33) 吳恕. 傷寒圖歌活人指掌(四庫未收輯刊 제4집 25책). 北京. 北京出版社. 2000. p.17.
- 34) 朱震亨. 丹溪治法心要(朱丹溪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39.
- 35) 朱震亨. 丹溪先生心法(朱丹溪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93-94, p.216.

준으로 두 가지 계열로 나누어 제시⁴⁷⁾하였다. 즉 하나는 傷寒과 아주 다른 四症(痰證, 食積, 虛煩, 脚氣), 즉 『類證活人書』 四證을 따른 계열이며, 다른 하나는 傷寒과 유사한 病症(冬溫, 寒疫, 溫疫, 溫病, 熱病, 風溫, 溫癘, 濕溫, 溫毒 및 『金匱要略』의 四症, 즉 瘧, 濕, 喝, 霍亂)을 따른 계열이다.

필자는 陳寶蒼이 제시한 類傷寒 病症의 발달 모델을 수정하였는데, 그의 모델 중 전자에 『傷寒證治明條』의 八證을 따른 계열을 추가하고(이는 『類證活人書』 四證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임) 계열의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기타 계열(혼합형)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類傷寒 病症의 발달 모델(『傷寒論』부터 『醫學入門』까지)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類證活人書』 四證(痰證, 食積, 虛煩, 脚氣)

- 36) 朱震亨. 金匱鉤玄(朱丹溪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37) 戴原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3, 178.
- 38) 金禮蒙. 醫方類聚(vol. 1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512. 재인용.; 金禮蒙. 醫方類聚(vol. 6).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462. 재인용.
- 39) 劉純. 玉機微義(劉純醫學全集 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52, 347, 349, 406, 414, 5782.
- 40) 陶節菴.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12. p.16, pp.234-242.
- 41)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24, 140, 141, 146.
- 42) 熊宗立. 名方類證醫書大全(中國古代醫方真本全集 vol. 20).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p.239.
- 43)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域外漢籍珍本文庫 vol. 4).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3. p.17, 20, 22.
- 44)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2. pp.6654-6666.
- 45)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p.692-694.
- 4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47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28, 1129, 1130, 1132, 1133, 1134, 1830.
- 47) 陳寶蒼. 類傷寒的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p.81. “첫째는 傷寒과 완전히 다른 四證(痰證, 食積, 虛煩, 脚氣)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는 傷寒의 病症과 유사하여 치료가 동일한 類傷寒, 예를 들어 겨울 이외에 風寒에 감축하여 나타나는 증상(冬溫, 寒疫, 溫疫, 溫病, 熱病, 風溫, 溫癘, 濕溫, 溫毒 및 『金匱要略』의 瘧, 濕, 喝, 霍亂)을 포함한다.”

을 따른 계열, 둘째 明代 王震의『傷寒證治明條』八證(痰證, 食積, 虛煩, 脚氣+瘡毒, 瘀血, 勞發, 痘疹)을 따른 계열, 셋째『金匱要略』四證(瘧, 濕, 喝, 霍亂)을 따른 계열, 넷째 溫病, 內傷, 雜病, 外科, 婦人科, 小兒科까지 포함된 기타 계열(혼합형) 등이다.

자료로 선정된 역대 醫書(『醫學入門』 이전까지)에 수록된 類傷寒 소속 症狀의 발달 계열을 시대 순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Table 2와 같다.(朱肱이 처음으로 痰證, 食積, 虛煩, 脚氣가 類傷寒이라고 한 뒤 許叔微, 郭雍 등에 의해 ‘似傷寒(類傷寒) 四證’이라고 불렀기에 ‘四證’으로 약칭하고, 그 중 虛煩을 따로 분류한 경우는 ‘三證’으로 약칭함. 최초로 나타난 증상은 음영으로 표시함.)

李樾은『醫學入門傷寒篇』에서 類傷寒 소속 病證 10종(痰飲, 虛煩, 脚氣, 食積, 瘡毒, 瘀血, 勞發, 痘疹)의 8종 + 外感感冒, 內傷勞傷의 2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類傷寒 四證(虛煩, 痰證, 脚氣, 食積)은 朱肱의『類證活人書』(1108)를 따랐고, 그 중 8종은 王震의『傷寒證治明條』「新增續四證」을 따른 것이고, 外感의 感冒는『玉機微義』의 견해와 같다.

따라서 李樾이 外感의 感冒와 內傷의 勞傷을 자신이 더했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內傷의 勞傷 1종을 더한 셈이다. 또한 그가 ‘百病이 모두 類傷寒이다.’라고 한 것은 朱震亨의 ‘여러 증상 중에서 傷寒과 서로 비슷한(傷寒相類) 경우가 매우 많은데 모두 雜症이다.’⁴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李樾이 추가했다고 밝힌 外感의 感冒와 內傷의 勞傷에는 하위의 病證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外感에는 感冒(感寒, 感風)가 있고, 內傷에는 挾證(外感兼內傷, 內傷兼外感), 內傷房室, 內傷虛損, 解

休, 砂證이 있다. 또한 瘡毒에 流注傷寒과 赤膈傷寒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傷寒篇」외에 다른 編에서 行尸, 大頭腫에 대해 ‘似傷寒’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는 그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한편 黃耳傷寒에 대해 清代 吳坤安은『傷寒指掌』(1796)에서 類傷寒으로 분류⁴⁹⁾하였는데, 李樾은『醫學入門·傷寒篇』「雜證·聾耳」조목 아래에서 “風邪가 腎으로 들어가서 귓속이 갑자기 아프고 外證이 發熱, 惡寒하지만 … 正傷寒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⁵⁰⁾고 하여 傷寒과 유사한 病症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黃耳傷寒을 傷寒 중 ‘雜症’으로 분류하였지 類傷寒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로부터 李樾이 類傷寒으로 분류할 때 단순히 傷寒과 유사한 공통증상(發熱, 惡寒)을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傷寒證治明條』와 같은 별도의 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傷寒證治明條』, 『玉機微義』의 내용과 비교

李樾은『醫學入門』에서 인용할 때 문헌의 내용을 결코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었다. 심지어는 가령『傷寒百問歌』를 직접 인용할 때에도 그 문헌의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문장을 고쳐서 인용하였다. 따라서『醫學入門』의 특정 문장을 근거로 어느 서적에서 기원하였다고 밝히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傷寒證治明條』, 『玉機微義』의 내용과『醫學入門·傷寒篇』의 내용을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1) 痰症

痰의 생성 기전이 風傷肺, 濕傷脾임을 지적한 것과 類傷寒 病症 중 痰症에 대한 처방 중 瓜蒂散을 거론한 것이『傷寒證治明條』와『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한편『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蔘蘇飲, 金沸草

48) 朱震亨. 丹溪治法心要(朱丹溪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39. “有感冒等輕疾, 不可便認爲傷寒妄治. 西北二方, 極寒肅殺之地, 故外感甚多; 東南二方, 溫和之地, 外傷極少. 雜病亦有六經所見之證, 故世俗混而難別. 凡證與傷寒相類者極多, 皆雜證也. 其詳出『內經·熱論』. 自長沙以下, 諸家推明甚至, 千世之下, 能得其粹者, 東垣也. 其曰: 內傷極多, 外傷間而有之. 此發前人之所未發. 後人徇俗, 不能眞切, 雷同指爲外傷, 極謬. 其或可者, 蓋亦因其不敢放肆, 而多用和解及平和之藥散之爾. 若粗率者, 則必殺人, 切戒.”

49) 吳坤安.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5.
50) 李樾.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58.
51)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Table 3. Phlegm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痰者，津液所化。盖由風傷於肺，肺氣不清而生痰。濕傷於脾，脾氣凝濁而生痰。痰之爲病，其人憎寒壯熱，惡風自汗，狀似傷寒，但氣上衝咽而不息，脉有寸浮者，亦有寸伏者，以意參之。又有寸口沈滑，或沈伏者，必有痰垢膩於上膈。右關滑大，或弦滑，必涎飲積於中脘。但頭不疼，項不强，若涎多者，亦隱隱頭疼，此爲異耳。宜用柴胡半下(夏)湯，… 瓜蒂散⁵¹⁾(一痰症)</p>	<p>[痰證]頭項不痛，寒熱而寸多浮。痰者，津液所化。風傷肺，濕傷脾，凝濁而生。外證，頭項皆和，惟寒熱，類傷寒耳。初起，便胸膈滿悶，氣上衝咽，寸浮爲異。有熱者，藜蘆飲，金沸草散，柴胡半夏湯。無熱者，二陳湯，溫膽湯。通用導痰湯，有痰結胸者，鶴頂丹，枳梗二陳湯。有痰上攻，非次頭疼者，瓜蒂散，吐之。⁵²⁾</p>

散，柴胡半夏湯，二陳湯，溫膽湯，導痰湯，鶴頂丹，枳梗二陳湯 등)을 제시한 것은, 『醫學入門·傷寒篇』 인용서적, 예를 들어 『仁齋傷寒類書』와 같은 서적뿐만 아니라 폭넓은 醫書, 方書로부터 수집·취합한 것으로, 다른 醫書에서 찾아볼 수 없는 李梴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2) 食積

類傷寒 病症 중 食積과 傷寒病의 공통점과 들을

감별할 수 있는 특징과 食積에 대한 처방 중 藿香正氣散을 거론한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한편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瓜蒂散, 二陳湯加黃連生薑烏梅, 陶氏平胃散, 胃苓湯, 治中湯, 大柴胡湯, 五積散去當歸麻黃加入藜蘆葉, 桂枝加大黃湯, 小承氣湯, 理中湯加枳實, 四逆湯 등)을 제시한 것은 폭넓은 醫書, 方書로부터 수집·취합한 李梴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Table 4. Food accumulation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盖由脾胃伏熱，因食不化，以致發熱，惡寒頭疼，與傷寒相似，但不身疼，左手人迎之脉平和，右手氣口之脉繁盛，知有食也，宜用五積散，… 表熱未除，口渴，腹滿痛，大便秘者，用大柴胡湯，… 如食在上脘不化，胸滿嘔吐者，用瓜蒂散，或鹽湯探吐之，又有夾食傷寒，附方在左。藿香正氣散⁵³⁾(二食積)</p> <p>或問：類傷寒四症者，是何所類也？抑何所異耶？… 二曰食積，發亦頭疼，身熱惡寒，此所以爲類也，但心腹飽悶，或手按之則痛，左手關前人迎之脉平和，右手關前，氣口之脉繁盛，故『指掌圖』云：傷食傷寒，惟辨人迎氣口。又東垣言：傷食惡食，傷食明已，此所以異也。⁵⁴⁾</p>	<p>[食積]心腹滿悶。外證，頭疼發熱惡寒，全類傷寒，惟身不痛，心腹飽悶，噯噯嘔逆，寸脈弦盛爲異耳。『百證』云 頭疼而惡心，身不痛者，食積也。頭疼而身亦痛者，傷寒也。食在上脘，胸滿惡心欲吐，實者，瓜蒂散，吐之。食在中脘，痞脹欲嘔，有熱者，二陳湯加黃連生薑烏梅，或陶氏平胃散。腹痛欲瀉者，胃苓湯，寒者，治中湯，心腹滿痛，不大便者，大柴胡湯，下之。○又有夾食傷寒，謂之太陰積證，表證，藿香正氣散，或五積散，去當歸麻黃，加入藜蘆葉。有表復有裏者，桂枝加大黃湯。表證已罷，但裏實滿者，小承氣湯。凡傷寒，下後六七日，不大便煩熱，腹滿而痛，胃中有宿食故也。若中寒夾食，即見吐利嘔逆，霍亂等證，急用理中湯，加枳實，或四逆湯，救之。凡夾食，脾胃已傷，不可輕易汗下。⁵⁵⁾</p>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54-6656.

5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29-1130.

53)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56-6658.

54)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Table 5. Vexation of deficiency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其人素弱, 有所勞傷, 因而損氣, 氣衰則火旺. 『內經』曰: 陰虛生內熱. 所以內有熱, 則應外矣, 故類傷寒耳. 但無頭痛身痛惡風之症. 蓋表裡皆虛, 不可汗下. 若耗損眞元, 多不可救. 雖虛煩不安, 不可太攻其熱, 恐熱去則寒起. 『活人書』云: 正宜服竹葉石膏湯. … 若上盛下虛, 燥煩自利, 手足冷, 于竹葉石膏湯中, 去石膏, 加附子, 名既濟湯. 若傷寒, 汗吐下後, 虛煩不得眠者, 用梔子香豉湯. … 若婦人新產, 挾血煩虛(虛煩), 用四物湯, 本方內加入蔘… 陰症內寒外熱, 肢節痛, 口不燥, 而虛煩者, 宜用陰旦湯.⁵⁶⁾ (三虛煩)</p> <p>或問: 類傷寒四症者, 是何所類也? 抑何所異耶? … 三曰虛煩, 諸虛煩熱者, 皆因七情內傷, 腎水不能上升, 心火不能下降, 此陰不足而陽有餘, 故使心下鬱悶不安, 發熱困倦, 此所以類也. 但不惡寒, 不頭疼, 不身痛. 若血虛者, 亦眉稜太陽額角, 眩暈而痛, 氣少懶言, 或虛汗喘促, 所以異也.⁵⁷⁾</p>	<p>[虛煩]頭身不痛, 無寒而脈鮮緊. 虛煩者, 七情六慾, 以致腎水虛, 而心火煩燥, 或雜病後, 餘熱未淨而煩, 或勞役氣衰, 火旺而煩, 或陰虛, 相火動而煩. 有類傷寒初證, 外亦發熱, 但頭身不痛, 脈不緊數爲異. 雖陰虛, 亦惡寒而不甚, 脈亦能數而無力. 大概病後, 虛羸少氣, 煩燥欲嘔者, 竹葉石膏湯. 輕者, 小柴胡湯. 痰逆惡心者, 橘皮竹茹湯. 陰證, 內寒外熱, 肢節痛, 口不燥而虛者, 陰旦湯. 服涼藥後, 脈愈大而無力, 熱愈甚而燥渴者, 單人蔘湯, 或人蔘黃芪煎湯, 下五苓散. 勞役氣虛者, 補中益氣湯. 陰虛者, 四物湯, 加知母黃柏. 脾胃弱者, 三白湯. 驚悸痰盛者, 溫膽湯. 心神不安者, 朱砂安神丸. 婦人新產, 挾血虛煩者, 四物湯, 加入蔘淡竹葉麥門冬甘草. 表虛忌汗, 裏虛忌下, 但宜平和之劑, 調理. 『千金』云: 虛煩, 不可太攻, 熱去則寒起. 若用傷寒汗下重劑, 而治虛煩, 重則津竭而死, 輕則內消盜汗, 變爲勞瘵. 傷寒有未經汗吐下而煩者, 胸滿膈實煩熱. 有已經汗吐下而煩者, 胸滿煩燥懊憹. 見各條.⁵⁸⁾</p>

(3) 虛煩

虛煩의 病機 중 心腎不交와 婦人의 産後 血虛를 지적한 것, 虛煩과 傷寒病의 공통점과 둘을 鑑別할 수 있는 특징, 虛煩에 대한 처방 中 竹葉石膏湯, 陰旦湯, 四物湯加味를 거론한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醫學入門·傷寒篇』에서 類傷寒 病症 中 虛煩의 病機로서 雜病 後 餘熱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勞役으로 氣衰 火旺하는 것과 陰虛로 相火가 動하는 것을 추가한 것은, 다른 醫書에서 虛煩 類傷寒을 설명한 것과 비교하면 李梴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볼 수

pp.6662-6663.
5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0.
56)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製中心. 2002. pp.6658-6660.
57)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製中心. 2002. pp.6662-6663.
5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28-1129.

있다. 또한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小柴胡湯, 橘皮竹茹湯, 單人蔘湯, 人蔘黃芪煎湯, 五苓散, 補中益氣湯, 四物湯加知母黃柏, 三白湯, 溫膽湯, 朱砂安神丸 등)을 제시한 것은 폭넓은 醫書, 方書로부터 수집·취합한 李梴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4) 脚氣

類傷寒 病症 中 脚氣의 病機가 風寒暑濕의 四氣가 足으로 薰蒸한 것이라는 점, 脚氣와 傷寒病을 鑑別하는 특징, 脚氣에 대한 처방 中 千金續命湯, 脾約丸을 거론한 것, 毒氣가 心으로 들어가면 예후가 아주 불량하다는 것, 脚氣 치료의 금기(補하는 약이나 淋洗法, 草藥으로 攤疊하는 것을 금함)를 지적한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 이다.

한편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麻黃湯加防風羌活, 敗毒散合檳蘇散, 大柴胡湯加羌活細辛杏仁, 升麻葛根湯合檳蘇散, 小柴胡湯去蔘加防風葛, 左經湯, 古

59)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Table 6. Beriberi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天之風寒暑濕之氣，蒸於足，發則類傷寒。身熱頭痛，肢節痛重，大便秘，或嘔。但初病起於脚膝，屈弱不能移動，此為異耳。最忌補劑及藥淋洗，并冷草藥攤盒。若犯此禁，則毒氣入心，小腹頑痺不仁，或氣喘嘔吐，如不急治，死在旦夕矣。宜用千金續命湯…脾約丸。⁵⁹⁾(四脚氣)</p> <p>或問：類傷寒四症者，是何所類也？抑何所異耶？然，…四曰脚氣，始作亦頭疼身熱，肢節痛，大便秘，或嘔，此所以類也。但初病時，起於脚膝，屈弱不能動移。蓋寒濕之氣，蒸於足，若感於寒，所患必冷，感於暑，所患必熱，此所以異也。學者於此四症，必須詳玩辨明，不可苟且以誤人耳。⁶⁰⁾</p>	<p>[脚氣]膝脛軟柔。脚曰氣者，<u>風寒暑濕</u>，<u>四氣蒸於足</u>，循經入臟之深，而發則以漸，非若四氣中人，雖淺而驟也。<u>外證</u>，<u>全類傷寒</u>。且有六經傳變，一如太陽，頭疼身熱云云，直至厥陰，煩滿囊拳。又有合併二病，但初起，<u>脚膝軟弱頑痺</u>，<u>轉筋赤腫</u>，<u>為異耳</u>。如太陽證，見外踝循京骨，至小指外側，皆痛者，隨四氣偏勝發散。麻黃湯 加防風羌活 細辛 葛根 白朮 茯苓 防己，或敗毒散 合檳蘇散。陽明證，見髀膝外廉下，入中指內痛者，隨四氣偏勝微利。少陽證，見諸足指節痛者，宜和解。小柴胡湯，去麥，加防風葛根細辛白朮茯苓麥門冬乾姜小草。三陽合病，拘攣便閉者，合前三方，加減而服，名左經湯。或專入足太陰經，證見股膝內廉，足大指端內側痛，或浮腫者，古桂附湯，加防己 白朮 茯苓。少陰經，證見足小指下，連足心廉股內痛，衝胸不食，面黑溺澁，小腹不仁者，難治。八味丸，救之。厥陰經，證見足大指連內廉，臍腹脹痛，脚攣乾嘔者，養真丹。如足三陰，攣痺緩弱，上攻胸脅肩背，下注脚膝，足心熱者，換腿丸。要之，風多入肝，病筋走注，脈浮無汗，小續命湯，加獨活，風毒腫痛，排風湯，檳榔散。筋急掣痛，乳香定痛散。濕多入脾，病肉重着，行起忽倒，或腫，除濕湯。痰多者，用此湯，吞青州白丸子。暑多入心，病氣喘悶煩躁，所患必熱，敗毒散，加大黃。寒多入腎，病骨攣急掣痛，所患必冷。五積散，越婢湯，加木瓜。通用，千金續命湯，流氣飲子，烏藥順氣散。煩燥者，單竹瀝，飲之。便閉者，三和散，脾約丸。毒氣衝心，作痛者，蘇子降氣湯，下養正丹，或吳萸煎湯，刺入姜汁，救之，死在旦夕。尋常，春夏檳蘇散，加川練子，熱腫赤者，敗毒散，加木瓜 蒼朮。秋冬五積散，加木瓜檳榔牛膝吳萸。最忌補湯，淋洗草藥攤盒。其證，有因於氣，因於飲食，及丹石者，不可不知。⁶¹⁾</p>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60-6661.

60)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62-6663.

61) 李槤.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30-1132.

桂附湯加防己 白朮 茯苓，八味丸，養真丹，換腿丸 小續命湯加獨活，排風湯，檳榔散，乳香定痛散，除濕湯，青州白丸子，敗毒散加大黃，五積散，越婢湯加木瓜，流氣飲子，烏藥順氣散，竹瀝，三和散，蘇子降氣湯，養

62)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Table 7. Sore toxin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新增續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經曰: 諸痛瘍瘡皆屬心火. 若夫心火熾盛, 則津液乾涸, 氣血凝濁, 經絡不通, 孔竅閉塞, 而生熱矣. 又曰: 諸脉浮數, 當發熱, 而洒淅惡寒, 與傷寒無異. 但飲食如常, 驗其頭面身體手足, 或隱處有紅腫小瘡, 卽須認其端的. 若發背對口, 始覺如粟米, 不過二三日, 則大如盤矣. 若是疔瘡不與速治, 則毒氣散蔓, 而莫之救也. 不可作傷寒發汗, 或投寒涼之藥, 醫尙不專, 急令病家, 別請外科治療, 庶不悞人也.⁶²⁾(一瘡毒)</p>	<p>[瘡毒]飲食如舊, 愀發腫痛可求. 凡患癰疽背發疔瘡, 一切無名腫毒. 初期, 寒熱, 全類傷寒, 但傷寒, 不食. 瘡毒, 飲食如常. 且身有紅腫愀痛處, 可驗. 不可妄施汗下, 宜外科法治之. ○俗呼流注傷寒, 流者, 行也. 注者, 住也. 血氣流行, 遇寒邪, 凝滯, 結如堆核. 大者如拳, 小者如李. 初起, 寒熱, 全類傷寒, 未潰者, 宜敗毒散, 合涼膈散, 加金銀花. 已潰者, 托裏散. 不可作正傷寒, 治之. ○俗呼赤膈傷寒, 胸膈赤腫, 疼痛寒熱, 類傷寒, 非正傷寒也. 宜荊防敗毒散, 合小陷胸湯, 裏實者, 防風通聖散.⁶³⁾</p>

正丹, 吳萸煎湯, 敗毒散加木瓜蒼朮, 五積散加木瓜檳榔 등)을 제시한 것은 폭넓은 醫書, 方書로부터 수집·취합한 李梴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5) 瘡毒

類傷寒 病症 중 瘡毒과 傷寒病의 공통점과 둘을 감별하는 특징과 瘡毒을 傷寒으로 치료해서는 안 되고 外科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醫學入門·傷寒篇』에서 類傷寒 病症 중 瘡毒 아래에 流注傷寒, 赤膈傷寒이 나열되어 있는데, 후세에 赤膈傷寒은 瘡毒에서 벗어나 類傷寒 病症 중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流注傷寒은 기존의 연구에서 수집한 55종 또는 37종에서 누락되어 있다.

한편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敗毒散合涼膈散加金銀花, 托裏散, 荊防敗毒散合小陷胸湯, 防風通聖散 등)을 제시한 것은 폭넓은 醫書, 方書로부터 수집·취합한 李梴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6) 瘀血

類傷寒 病症 중 瘀血의 病機 중 津液內竭과 瘀血과 傷寒病의 공통점과 둘을 구분할 수 있는 脈象을 제시한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犀角地黃湯, 桃仁承氣湯, 抵當湯丸, 犀角地黃湯加青皮芩連大黃, 小柴胡湯加桃仁生地 등)을 제시한 것은 폭넓은

醫書, 方書로부터 수집·취합한 李梴의 독창적인 업적이다.

(7) 勞發

‘勞發’의 病名은 『傷寒證治明條』의 내용으로 볼 때 ‘勞傷’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結核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李梴이 제시한 類傷寒 病症 중 內傷의 ‘勞傷’과 ‘勞發’은 글자가 서로 비슷하여 그 증상이 유사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病症이다. 陳柱杓은 勞發과 勞傷의 개념은 너무도 비슷하기에 별로 구분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⁶⁴⁾ 평가하였다. 그러나 李梴이 언급한 ‘勞發’은 痰火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外科 질환 중 하나인 結核을 가리킨 것이며, 內傷의 ‘勞傷’이란 挾證, 房室, 虛損, 解休, 砂證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증상은 명확히 구별된다.

類傷寒 病症 중 勞發의 病機가 평소 痰火가 있던 것이 勞傷으로 인해 재발한다는 점, 勞發과 傷寒病의 공통점과 둘을 감별할 수 있는 특징, 勞發의 예후, 치료에 降火和解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6663.

6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3.

64)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18.

Table 8. Static blood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新增續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人有惡寒發熱，狀類傷寒，診得脉扎澀，脇下與少腹攻痛，手不可近，大便黑，小便利者，此血證諦。蓋於血，小腹乃屬肝部，肝爲血海，故有瘀血。蓄積於此，醫須審。其曰前曾有跌墜挫閃拳踢之情，即不可作傷寒，與其發汗，并服寒涼之劑。蓋血得熱則行，得寒則凝。倘時或瘀血上衝，昏迷不省，良久復甦，此皆血症之候也。宜服行氣活血之藥。⁶⁵⁾(二瘀血)</p> <p>或問：續類傷寒四症，與前類傷寒四症，二者其害孰甚？曰然。續類者，尤甚於前類者也。… 瘀血之症，惡物內蓄，穢毒上衝，悞於汗下，昏暈倒仆，豈得重活！… 故此續類者，尤甚於前類也。醫者當明辨仔細，切勿苟圖小利，而悞人之命耳。⁶⁶⁾</p>	<p>[瘀血]昏忘如狂，胸脇小腹不快。血乃人身河渠，貴流通，而不貴凝滯。或當汗不汗，津液內滲，或不當汗，而汗津液內竭，或利小便過多，以致血熱，化爲惡瘀。又或其人，素有跌撲閃到，善思善鬱，過食煎炒，以致血熱瘀滯，蓄於上焦，則衄血善忘，甚則昏迷，良久乃甦，或胸脇腹皆滿痛，譫語昏憤，謂之血結胸證。蓄於中焦，則頭汗作渴發黃。蓄於下焦，則如狂便黑，小腹急結，按之則痛，其脈必扎澀，外證，寒熱，全類傷寒。太陽證，則如狂，陽明證，則善忘，少陽證，則寒熱似瘧。大柴治上，犀角地黃湯。治中，桃仁承氣湯。治下，抵當湯丸。然必證重脈數，方加抵當，攻之。證輕脈微，通用犀角地黃湯，加青皮芩連大黃，或小柴胡湯，加桃仁生地，兼梔子茵陳。一切血證，皆此治法不易，傷寒有用承氣，大下不解，反便堅善食者，瘀血也。凡病，日輕夜重，便是瘀血，所以打撲傷損證，亦類傷寒。⁶⁷⁾</p>

Table 9. Subcutaneous node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新增續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其人氣血寡弱，素有痰火結核，於脇縫，或腋下，或臂膊上，畧有動作勞傷，則一時硬腫疼痛，發寒發熱，似傷寒者，其脉弦數無力。若腿縫有核腫痛者，俗呼謂之腿勞發。若腋下及臂膊上，有核腫痛者，有無核而但作寒作熱者，此皆謂之勞發也。蓋因氣血虛弱，勞役所致。斯勞發之名，乃世俗傳襲之言耳，非正病之名也。所治之法，不可汗吐下，但宜補血養氣，滋陰降火，清痰和解之劑，其病自瘥矣。有云：勞發不須服藥，待週時，自然微汗而解已，此說亦驗。⁶⁸⁾(三勞發)</p> <p>或問：續類傷寒四症，與前類傷寒四症，二者其害孰甚？曰然。續類者，尤甚於前類者也。… 勞發之症，素乏眞元，復傷形體，重加峻劑，氣血愈削，終必危殆。… 故此續類者，尤甚於前類也。醫者當明辨仔細，切勿苟圖小利，而悞人之命耳。⁶⁹⁾</p>	<p>[勞發]痰火，待曰周。素有痰火，畧有勞動，便發寒熱，全類傷寒。輕者將息，周日自愈。重者，頸腋膊膊之間，遂結核腫硬。或消下，次遇勞又發。治宜八物二陳湯，加降火和解之藥。⁷⁰⁾</p>

65)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6664.

66)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65-6666.

67) 李樾.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132-1133.

68)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Table 10. Smallpox in para-cold damage

『傷寒證治明條·新增續類傷寒 四症』	『醫學入門·傷寒篇』
<p>凡幼稚之兒, 并年長之人, 忽發熱憎寒, 頭疼身熱, 脣紅臉赤, 嘔欠喘欬, 狀類傷寒, 不可遽施汗下, 先須問其曾發斑蝟瘡否, 如未出, 當驗其尻骨耳尖并足俱冷. 又觀耳後紅絲赤縷爲的, 則當令專門調理, 若已出過, 方可作外感治之, 庶無悞已.⁷¹⁾(四痘疹)</p>	<p>[痘疹]尻足 當時冷. 凡幼稚及年長之人, 忽類傷寒證. 如未患痘疹, 尻足中指皆冷, 宜從痘證初熱條, 治之.⁷²⁾</p>

Table 11. Common cold in para-cold damage

『玉機微義』	『醫學入門·傷寒篇』
<p>易簡參蘇飲: 治感冒發熱, 頭痛, 或因痰飲, 凝積爲熱, 狀似傷寒者.⁷³⁾</p>	<p>[外感]疎泄勿甚 舊謂傷爲中, 感冒爲傷. 今悉分之, 正恐人以傷寒重劑, 而治感冒輕病, 變生異證. 蓋感寒, 雖亦惡寒面慘, 其頭疼發熱, 不如傷寒之甚, 脈多沈遲. 感風, 雖亦惡風鼻塞, 其發熱等證, 亦不如傷風之甚, 脈多浮數. 大槩, 未發熱者, 感寒, 香蘇散. 感風, 蘇葛湯, 古蒼荊散. 已發熱者, 九味羌活湯之類. 熱服, 肌體微潤即愈. 尋常體薄多疾之人, 只於原服藥中, 加生姜陳皮, 或寒用二陳湯, 風用三白湯加減, 詳見雜病.⁷⁴⁾</p>

(8) 痘疹

類傷寒 病症 중 痘疹과 傷寒病의 공통점과 둘을 감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제시한 것이 『傷寒證治明條』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9) 外感感冒

類傷寒 病症 중 感冒와 傷寒病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한 것이 『玉機微義』와 『醫學入門·傷寒篇』의 공통점이다.

한편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처방(香蘇散, 蘇葛湯, 古蒼荊散, 九味羌活湯, 二陳湯, 三白湯加減 등)을 제시한 것은 다른 醫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다.

특히 지적할 점은 李梴은 感冒를 類傷寒 病症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雜病提綱·外感」으로도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感冒가 본래 雜病에 속하지만 傷寒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李梴이 類傷寒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李梴은 外感의 感冒를 類傷寒으로 분류하였지만, 感冒를 類傷寒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感冒는 일반적으로 外感病의 총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傷寒과 다름이 없는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李梴은 感冒를 「類傷寒」과 「雜病提綱·外感」에 거듭 배열하였고, 感冒는 비록 外感에 해당되지만 傷寒처럼 심하지 않으므로 傷寒과 같이 重劑로써 치료해서는 안 된다⁷⁵⁾고 특별히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李梴은 傷寒病은 外邪가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製中心. 2002. pp.6664-6665.
69)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製中心. 2002. pp.6665-6666.
7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4.
71)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製中心. 2002. p.6665.
7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4.
73) 劉純. 玉機微義(劉純醫學全集 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349. “易簡參蘇飲: 治感冒發熱, 頭痛, 或因痰飲, 凝積爲熱, 狀似傷寒者.”
7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4.

六經을 침입한 병으로 인식하였지만 感冒는 外邪가 肺, 膀胱으로 침입하는 雜病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결국 感冒가 類傷寒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感冒’라는 용어의 개념과 포함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醫學入門·傷寒篇』에서 類傷寒 病症으로 제시한 ‘外感感冒’는 『醫學入門』 자체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內傷勞傷

內傷勞傷은 그 내용을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로 원문은 생략한다.

일찍이 張子和가 『儒門事親』 「內傷」⁷⁵⁾에서 飲食不消가 類傷寒임을 언급하였고, 朱震亨이 『金匱鉤玄』 「發斑」⁷⁷⁾에서 內傷發斑이 似傷寒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醫學入門』과 비교하면 매우 소략하며 내용도 일치하지 않아서 李梴이 해당 서적을 주로 인용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지적할 점은 李梴은 內傷勞傷을 類傷寒 病症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雜病提綱內傷」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內傷勞傷이 본래 內傷에 속하지만 傷寒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李梴이 類傷寒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가 內傷을 類傷寒으로 분류한 이유는 外感和 內傷을 감별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李東垣의 학설(「內外傷辨論」)을 「傷寒篇」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內傷 類傷寒에 挾證(外感兼內傷, 內傷兼外感)을 거론한 내용에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醫學入門·傷寒篇』에서 類傷寒 病症 중 內傷에 挾證(外感兼內傷, 內傷兼外感), 內傷房室, 內傷虛損, 解休, 砂證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전 서적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기에 李梴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3.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추출한 類傷寒의 개념과 범위

李梴은 『醫學入門·傷寒篇』의 編制에서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으로 배열하였다. 그렇다면 「類傷寒」조목을 『醫學入門·傷寒篇』에 두었으므로 그는 類傷寒을 傷寒의 일종으로 간주한 것일까? 그가 제시한 類傷寒 病症 10종 중 外感感冒를 제외하고 대부분 傷寒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李梴은 類傷寒을 傷寒의 일종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類傷寒」 뒤에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初證」, 「雜證」, 「變證」 이하는 사실 거의 正傷寒(단, 「雜證·聾耳」중 黃耳傷寒은 類傷寒에 해당됨) 으로부터 변화한 病症을 분류한 것이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李梴이 「傷寒篇」을 編制할 때 「正傷寒」, 「類傷寒」을 두 綱領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類傷寒 病症 10종 중 虛煩, 勞發을 제외한 8종은 「傷寒篇」이외의 篇에서 거듭 언급되어 있다. 가령 痰飲, 脚氣, 食積, 瘀血은 「雜病分類」에서, 外感感冒는 「雜病提綱外感」에서, 內傷勞傷은 「雜病提綱內傷」에서, 痘疹은 「小兒門」에서, 瘡毒은 「外科」에서 거듭 언급되어 있다. 虛煩은 「傷寒篇」에서만 언급되어 있지만 七情六慾, 혹은 雜病 후, 혹은 勞役氣衰로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역시 傷寒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勞發은 頸, 腋, 膊, 跨에서 멍울이 맺힌다(結核)는 증상으로 보아 역시 「外科」 중 結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李梴이 類傷寒을 ‘傷寒과 유사하지만 결코 傷寒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점(「傷寒篇」의 編制 특징과 類傷寒 病症)으로부터 李梴은 類傷寒을 傷寒의 일종으로 보지 않았으며, 類傷寒에 外感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類傷寒은 일반적으로 “病 증상이 傷寒과 비슷한 병증”⁷⁸⁾, 또는 “傷寒病이 아닌 데도 傷寒과 같이 열

7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4.

76) 張子和, 『儒門事親』(張子和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2. “凡一切冷食不消, 宿食不散, 亦類傷寒, 身熱, 惡寒戰栗, 頭痛, 腰脊強.”

77) 朱震亨, 『金匱鉤玄』(朱丹溪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內傷斑者 … 發斑似傷寒者, 痰熱之病發於外, 微汗以散之, 下之非理也.”

78) 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10. NAVER 검색. [Cited at 4 July 2016].

이 나는 질환⁷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의가 서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類傷寒이 포함하는 病症은 서로 다르다. 즉 전자는 冬溫, 溫病, 濕溫 등의 溫病과 霍亂, 痧, 傷食, 痰飲, 脚氣, 蓄血 등의 雜病과 內癰 등 외과 질환을 포함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傷寒이 아닌 모든 병증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類傷寒에 대한 이견은 類中風에 대한 견해와 서로 닮은 점이 있다. 類中風을 넓은 의미의 中風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령 張介賓은 『景岳全書·非風』에서 類中風을 中風과 혼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非風’으로 命名한다⁸⁰⁾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 類中風은 中風에 포함되므로 中風의 상대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 類中風은 中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中風의 상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傷寒’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類傷寒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⁸¹⁾, 역대 醫書 중에서 ‘傷寒’이라는 용어는 협의의 傷寒 개념(겨울철 風寒에 감촉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가리킴)과 광의의 傷寒 개념(溫病이 포함되어 外感病 전체를 가리킴)으로 흔히 혼칭되었다. 여기에서 類傷寒에 溫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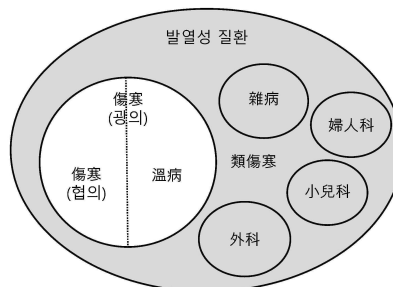
그러나 역대 醫書 중에서 언급한 ‘類傷寒(類傷寒, 似傷寒, 傷寒相類, 傷寒相似 등)’의 용어 안의 ‘傷寒(또는 正傷寒)’의 개념이 광의의 傷寒(이 경우 여러 溫病이 傷寒에 내포됨)인지, 협의의 傷寒(또는 正傷寒)인지(이 경우 여러 溫病이 傷寒에서 제외됨)를 『傷寒證治明條』, 『傷寒六書』, 『傷寒全生集』, 『醫學入門』, 『古今醫統大全』 등 몇몇 서적 외에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類傷寒은 傷寒의 상대개념’이라는 관점을 따르면, 類傷寒의 범위는 광의의 傷寒(類傷寒의 범위에 溫病이 포함되지 않음)과 상대개념과 협의의 傷寒과 상대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類傷寒 = 광의의 傷寒(正傷寒)과 상대개념

傷寒이 광의의 개념일 경우 類傷寒의 범위에 溫病(溫病, 濕溫, 熱病 등)이 제외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類傷寒의 범위는 음영부분으로 표시함)

Fig. 1. Range of para-cold damage and cold damage in a broad sense



『傷寒證治明條』, 『醫學入門』은 傷寒을 광의의 傷寒으로 인식하였으며 類傷寒에 溫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두 Fig. 1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類傷寒의 범위에 광의의 傷寒과 여러 溫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類傷寒 病症을 열거한 목적은 발열성 질환 중에서 광의의 傷寒(즉 外感病)이 아닌 병증을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② 類傷寒 = 협의의 傷寒(正傷寒)과 상대개념

傷寒이 협의의 개념일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類傷寒의 범위는 음영부분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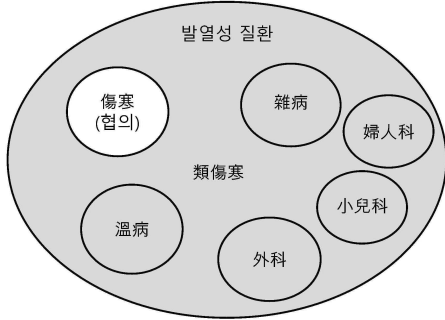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2312&cid=51276&categoryId=51276> “병증상이 상한(傷寒)과 비슷한 병증. 동온(冬溫)·온병(溫病)·습온(濕溫)·곽란(霍亂)·경(痧)·상식(傷食)·담음(痰飲)·각기(脚氣)·내옹(內癰)·축혈(蓄血) 등 증은 모두 오한이 있고 열이 나는 것이 상한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사한이라고 한다.”

79) 한국전통지식포털. [Cited at 4 Jul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7769>

80)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994.

81) 김상운.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3. 17(3). pp.211-212. “傷寒을 廣義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醫家들은 外感病을 傷寒에 포함시켜 논의하기 때문에 外感病을 類傷寒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傷寒을 狹義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醫家들은 外感病을 傷寒에 포함시키지 않고 類傷寒에 포함시켜 논의했기 때문이다.”

Fig. 2. Range of para-cold damage in a narrow sense



『傷寒六書』와 『傷寒全生集』, 『古今醫統大全』은 傷寒을 협의의 傷寒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는데, 『傷寒全生集』, 『古今醫統大全』에는 溫瘧, 風溫, 溫毒, 溫疫, 濕溫 등 여러 溫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Fig. 2에 해당된다.(『傷寒六書』에는 溫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傷寒全生集』과 함께 동일인(陶華)의 저서이므로, 陶華가 인식한 類傷寒은 결국 Fig. 2와 같다.) 이런 경우 類傷寒 병증을 열거한 목적은 협의의 傷寒과 溫病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광의의 傷寒과 상대되는 개념의 類傷寒은 『傷寒證治明條』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협의의 傷寒과 상대되는 개념의 類傷寒은 『傷寒六書』에서야 비로소 나타났다. 類傷寒을 광의 또는 협의의 傷寒의 상대개념으로 볼 때 각각 그 특성이 다르다.

類傷寒을 광의의 傷寒과 상대개념으로 설정하면 (Fig. 1), 傷寒의 범위가 Fig. 2에 비하여 넓으며, 이런 경우 類傷寒은 광의의 傷寒, 즉 外感病과의 감별에 사용되지 溫病과의 감별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類傷寒을 협의의 傷寒과 상대개념으로 설정하면(Fig. 2), 傷寒의 범위가 Fig. 1에 비하여 좁으며, 이런 경우 類傷寒은 溫病과의 감별에 활용될 수 있어서 후세에 많은 종류의 溫病을 類傷寒에 포함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醫學入門』 類傷寒 病症의 효용성

李梴이 類傷寒 四證에 다시 四證(瘡毒, 瘀血, 勞發, 痘疹)을 추가하고 또 다시 外感感冒와 內傷勞傷

을 추가한 것에 대해 “惡寒發熱이 난다고 하여 類傷寒이라고 여긴다면 대부분의 잡병을 類傷寒이라며 운운할 수 있겠다. 類傷寒은 많이 첨가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첨가된다면 별다른 의의가 없다.”⁸²⁾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임상에서는 傷寒이 아니면서 惡寒과 發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類傷寒의 종류를 넓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⁸³⁾라는 측면을 제기한 평가도 있다.

역대 醫家들은 惡寒發熱 등에 근거하여 『醫學入門』 이전에도 類傷寒 病症을 꾸준히 추가하였고 (Table 2), 『醫學入門』 이후로도 적지 않은 醫家들이 類傷寒의 범위에 黃耳傷寒, 挾陰傷寒, 內癰 등을 추가하였는데, 陳寶蒼은 類傷寒의 소속 病症을 55종까지 수집하고 김상운은 37종을 제시하였다. 그 중 많은 病症이 溫病에 해당된다⁸⁴⁾.

다만, 지적할 점은 外感病이 類傷寒에 포함된 시기에 대해 明代 末期 이후라고⁸⁵⁾ 알려져 있으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隋代 巢元方の 『諸病源候論』(610)에서 溫病(小兒의 天行病發黃, 婦人溫病, 小兒時氣病 등)이 類傷寒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外感病이 類傷寒에 포함된 시기는 明代 말기 이후가 아니라 隋代 이후로 보아야 한다.

‘類傷寒이 傷寒과 유사한 증상(공통증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梁代 陶宏景이 『肘後百一方』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 서적에서 飲酒後 諸病에서 나타나는 壯熱이 傷寒과 유사하다(似傷寒)고 한 뒤로 巢元方, 孫思邈 등이 그 관점을 따랐다.

宋代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發熱, 頭痛, 百節煩疼이 傷寒과 비슷하다고 지적한 뒤로 역대 醫家들은 類傷寒(似傷寒, 傷寒相類, 傷寒相似 등 포함)의 공통

8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018.

83) 김상운,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3, 17(3), p.212.

84) 溫病은 類傷寒을 협의의 傷寒의 상대개념으로 볼 경우 類傷寒에 포함되지만, 類傷寒을 광의의 傷寒의 상대개념으로 볼 경우 傷寒에 포함된다.

85) 김상운,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3, 17(3), p.213.

증상을 대체로 發熱, 惡寒, 身痛, 頭痛 등으로 확대, 인식하였다.

李梴은 類傷寒과 傷寒의 공통증상으로 發熱(「虛煩類傷寒」), 寒熱(「痰證類傷寒」), 「瘀血類傷寒」, 「瘡毒類傷寒」, 「勞發類傷寒」), 頭疼, 發熱, 惡寒(「食積類傷寒」), 六經傳變(「脚氣類傷寒」) 등⁸⁶⁾을 들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傷寒病과 비슷하지만 그가 인식한 正傷寒(광의)이 아니며⁸⁷⁾, 이는 類傷寒이 여타 病症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傷寒百證歌』를 근거로 類傷寒과 傷寒病을 감별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로 身痛⁸⁸⁾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李梴이 인식한 ‘類傷寒’은 비록 正傷寒(광의의 傷寒, 즉 外感病 전체)과 유사하나 正傷寒이 아닌 病症, 즉 正傷寒처럼 發熱, 惡寒, 頭痛 등의 初證은 같으나 결국 正傷寒으로 치료해서는 안 되는 病症이다.

類傷寒 病症은 『金匱要略』, 『類證活人書』, 『傷寒證治明條』 이후로 37종 또는 55종까지 증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세 서적과 같이 그 계통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 醫家들은 類傷寒 病症을 꾸준히 늘릴만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즉, 역대 醫家들이 임상실제에서 傷寒과 유사한 공통 증상, 즉 發熱, 惡寒, 身痛 등을 만났을 때 이를 傷寒과 구별해야 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朱肱이 “의사가 처방이 지리멸렬하여 發熱, 惡寒을 보고서 종종 傷寒으로 여겨 치료하여 汗吐下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비명횡사하는 자가 많다.”⁸⁹⁾고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類傷寒을 傷寒과 구별하지 못하고 傷寒으로 치료하면 그 치료가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후가 불량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類傷寒의 본래 목적이 傷寒과의 감별이므로, 類傷寒에 해당되는 病症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

으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朱肱은 일찍이 痰證, 食積, 虛煩, 脚氣의 四症을 類傷寒으로 선정한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王震은 瘡毒, 瘀血, 勞發, 痘疹의 四症을 類傷寒으로 추가 선정한 근거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傷寒證治明條』에서 類傷寒 四症 중 痰症, 食積은 實邪이므로 의사가 깨닫지 못하여 치료를 조금 늦출 수도 있으며 虛煩, 脚氣는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거나 약이 혹시 잘 듣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잘 치료된다고 한 점⁹⁰⁾과 續類傷寒 四症은 類傷寒 四症에 비해 그 해가 훨씬 심하다고 한 점⁹¹⁾과 續類傷寒 四症을 誤治하면 예후가 불량해진다고 한 점⁹²⁾으로 보아, 傷寒과 구별하여 치료할 중요성, 필요성이 큰 것을 기준으로 續類傷寒 四症을 추가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李梴은 類傷寒 病症에 대해 『類證活人書』의 痰證, 食積, 虛煩, 脚氣의 四症과 『傷寒證治明條』의 瘡毒, 瘀血, 勞發, 痘疹의 四症에 다시 外感感冒와 內傷勞傷을 더하여 모두 10종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類傷寒의 종류를 좀 더 넓게 파악하면서도 外感病과 잘 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陳寶蒼은 辨證論治의 측면에서 類傷寒 病症을 正傷寒의 치료와 동일한 것(瘧, 濕, 中噎, 霍亂 및 春夏秋의 傷寒)과 正傷寒의 치료와 다른 것(脚氣, 虛煩, 食積, 痰飲, 瘀血, 黃耳, 赤膈, 內癰 등)의 두 가지로 분류⁹³⁾하였다. 이처럼 類傷寒과 正傷寒의 치

8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28, 1129, 1130, 1132, 1133, 1134.

8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3. “寒熱類傷寒 非正傷寒也.”

8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30. “外證頭疼, 發熱, 惡寒, 全類傷寒, 惟身不痛 …”

8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p.177.

90)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65-6666. “以痰症食積, 多因疴邪, 醫有不逮, 尚能少緩. 虛煩脚氣, 忽生勞感, 藥或欠工, 猶或極療.”

91)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65-6666. “或問: 續類傷寒四症, 與前類傷寒四症, 二者其害孰甚? 曰然. 續類者, 尤甚於前類者也.”

92)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2. pp.6665-6666. “若乃瘡瘍之症, 或發癰毒疔疽, 妄投湯藥, 毒氣散蔓, 必致死亡. 瘀血之症, 惡物內蓄, 穢毒上沖, 悞於汗下, 昏暈倒仆, 豈得復活! 勞發之症, 素乏貞元, 復傷形體, 重加峻劑, 氣血愈削, 終必危殆. 痘疹之症, 根於胎毒, 發於時氣, 汗下一差, 乃虛表裏, 禍不旋踵, 故此續類者, 尤甚於前類也. 醫者, 當明辨仔細, 切勿苟圖小利, 而悞人之命耳.”

료가 동일하다면, 類傷寒의 본래 목적, 즉 傷寒이 아닌데 傷寒으로 간주하여 잘못 치료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함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IV. 결 론

이상으로 『醫學入門·傷寒篇』의 類傷寒 病症 10종의 기원을 살펴보고, 類傷寒의 발달과정에서 계통성이 있는지를 조망하며, 李梴이 인식한 類傷寒의 개념과 그 소속 病症 10종의 효용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醫學入門·傷寒篇』의 類傷寒 病症 10종의 근거는 『類證活人書』(痰證, 食積, 虛煩, 脚氣)와 王震의 『傷寒證治明條』「新增續類傷寒四證」(瘡毒, 瘀血, 勞發, 痘疹), 劉純의 『玉機微義』(外感感冒)에서 찾을 수 있으며, 李梴은 독자적으로 內傷勞傷을 더하였다.

2. 類傷寒 病症은 꾸준히 증가·발달되어 왔는데, 크게 네 가지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類證活人書』에 실린 四證(痰證, 食積, 虛煩, 脚氣)을 따른 계열, 둘째 明代 王震의 『傷寒證治明條』에 실린 八證(痰證, 食積, 虛煩, 脚氣+瘡毒, 瘀血, 勞發, 痘疹)을 따른 계열, 셋째 『金匱要略』에 실린 四證(痞, 濕, 喝, 霍亂)을 따른 계열, 넷째 溫病, 溫病, 內傷, 雜病, 外科, 婦人科, 小兒科까지 포함한 기타 계열(혼합형) 등이다. 『醫學入門·傷寒篇』의 類傷寒 病症은 그 발달과정 중 둘째 계열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3. 李梴은 類傷寒을 ‘傷寒의 일종’이 아니라 ‘광의의 傷寒과 상대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類證活人書』로부터 『傷寒證治明條』까지 이어지는 발달계통에 따라 10종으로 한정하였다. 『類證活人書』에 비해 類傷寒의 범위를 좀 더 넓혀 外感病(광의의 傷寒)이 아닌 病症을 外感病으로 誤治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4. 正傷寒과 類傷寒을 綱領으로 삼은 「傷寒篇」의 編制 방식과 類傷寒 病症 10종, 類傷寒의 개념(광의의 正傷寒과 상대개념), 해당 처방과 치료를 폭넓게 수집한 점을 李梴의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학술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References

- Zhang JB. JingYueQuanShu(in Zhang JieBin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2.
張介賓. 景岳全書(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994.
- Tanba mototane. ZhongGouYiJiKao.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ing Co. 198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Cheng GP. (ZengPi)YiXueXinWu. Taipei. WenGuangTuShu. 1982.
程國彭. (增批)醫學心悟. 臺北. 文光圖書. 1982.
- Zhang Lu. Zhang Shi Yi Tong(in Zhang Lu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1999.
張璐. 傷寒緒論(張璐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Li Chan. YiXueRuMen(vol. 1). Seoul. Publisher NamSanDang. 199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 Li Chan. YiXueRuMen(vol. 2). Seoul. Publisher NamSanDang. 199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 Kim YM. UiBangLyuChwi(vol. 6, 7, 10).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ing Co. 1981.
金禮蒙. 醫方類聚(vol. 6, 7, 1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 Chao YF. ZhuBingYuanHouLun(in QianDingSiKuQuanShu ZiBuWuYiJiaLei vol.2). Seoul. Publisher DaeSeongMunHwaSa. 1995.
巢元方. 諸病源候論(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2). 서울. 大星文化社. 1995.
- Sun SM. Bei Ji Qian Jin Yao Fang(in

93) 陳寶蒼. 類傷寒的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QianDingSiKuQuanShu ZiBu WuYiJiaLei vol.3). Seoul. Publisher DaeSeongMunHwaSa. 199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3).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0. Cheng WY. ZhuJieShangHanLun(in Cheng WY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4.
成無已. 注解傷寒論(成無已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11. Chen SW et al.. TaiPingHuiMinHeJiJuFang (in QianDingSiKuQuanShu ZiBu WuYiJiaLei vol.9). Seoul. Publisher DaeSeongMunHwaSa. 1995.
陳師文 등. 太平惠民和劑局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9). 1995.
12. Zhu Gong. Zeng Zhu LeiZhengHuoRenShu. Seoul. Namsandang. 1987.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남산당. 1987.
13. Pang AS. ShangHan Zong Bing Lun(in Zhu Gong Pang AS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龐安時. 傷寒總病論(朱肱龐安時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4. Zhao Ji. ShengJiZongLu.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ing Co. 1982.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5. Xu SW. ShangHanJiuShiLun(in Xu SW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許叔微. 傷寒九十論(許叔微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6. ShangHanBaiZhengGe(in Xu SW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許叔微. 傷寒百證歌(許叔微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7. Qian WL. ShangHanBaiWenGe. Beijing. ZhongGuoShuDian. 1991.
錢聞禮. 傷寒百問歌. 北京. 中國書店. 1991.
18. Guo Yong. ShangHanBuWangLun. Beijing. ZhongGuoShuDian. 1992.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19. Liu WS original work. Jin JP trans.. ShangHanZhiGeLunFang. (in JinYuanSiDaiJia YiXueQuanShu). Seoul. Publisher DaeSeongMunHwaSa. 2007.
劉完素 著. 陳柱杓 註釋. 傷寒直格論方(金元四大家醫學全書 中). 서울. 法仁文化社. 2007.
20. Zhang ZH. RuMenShiQin(in Zhang ZH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張子和. 儒門事親(張子和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1. Wang HG. YiLeiYuanRong(in Wang HG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5.
王好古. 醫壘元戎(王好古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22. Li ZN. YongLeiQianFang (HaiWaiHuiGuiZhongYiGuJiShanBenJiCui vol.21). Beijing. ZhongYiGuJi Publishing Co. 2005.
李仲南. 永類鈴方(海外回歸中醫古籍善本集粹 vol.21).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23. Wei YL. Shi Yi De Xiao Fang(in QianDingSiKuQuanShu ZiBu WuYiJiaLei vol.14). Seoul. Publisher DaeSeongMunHwaSa. 1995.
危亦林. 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vol.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4. Yang SY. Ren Zhai ShangHan Lei Shu(in Yang SY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楊士瀛. 仁齋傷寒類書(楊士瀛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5. Wu Shu. ShangHanTuGeHuoRenZhiZhang

- (SiKuWei ShouJiKan vol.4-25). Beijing, Beijing Publishing Co. 2000.
吳恕. 傷寒圖歌活人指掌(四庫未收輯刊 제4집 25책). 北京. 北京出版社. 2000.
26. Zhu ZH. Dan Xi Xian Sheng Xin Fa(in Zhu DX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朱震亨. 丹溪先生心法(朱丹溪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7. Zhu ZH. DanXiZhiFaXinYao(in Zhu DX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朱震亨. 丹溪治法心要(朱丹溪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8. Zhu ZH. JinKuiGouXuan(in Zhu DX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朱震亨. 金匱鉤玄(朱丹溪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9. Dai YL. MiChuanZhengZhiYaoJueJiLeiFang.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ing Co. 1989.
戴原禮. 秘傳證治要訣及類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30. Liu Chun. YuJiWeiYi(in Liu Chun YiXueQuanShu).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ing Co. 1986.
劉純. 玉機微義(劉純醫學全集 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31. Tao JA. ShangHanLiuShu.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ing Co. 1990.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2. Tao JA. ShangHanQuanSheng Ji. Zhengzhou. ZhongYuanNongMin Publishing Co. 2012.
陶節菴. 傷寒全生集.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2012.
33. Xiong ZL. MingFangLeiZhengYiShuDaQuan (ZhongGuoGuDaiYiFangZhenBenQuanJi vol. 20). Beijing. QuanguoTushuGuanWenXianSuoWeiFuZhi ZhongXin. 2004.
熊宗立. 名方類證醫書大全(中國古代醫方真本全集 vol. 20).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34. Xiong ZL. LeiBianShangHanHuoRenShuKuoZhiZhangT uLun(in YuWaiHanJiZhenBenWenKu vol.4). Chongqing. Xian Shifan University Publishing Co., Beijing. RenMin Publishing Co. 2013.
熊宗立. 類編傷寒活人書括指掌圖論(域外漢籍珍本文庫 vol. 4).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3.
35. Wang Zhen. ShangHanZhengZhiMingTiao (vol. 2)(in XiJianGuDaiYiJiChao(Gao)) BenCongBian vol. 9). China. Quanguo TushuGuan WenXian micro-duplication center. 2002.
王震. 傷寒證治明條(下)(稀見古代醫籍鈔(稿)本叢編 vol.9). 中國.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2.
36. Xu CF. GuJinYiTongDaQuan(vol. 1). Seoul. Aulloseu Publishing Co. 1994.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37. Wu KA. ShangHanZhiZhang. Shanghai. ShanghaiKeXueJiShu Publishing Co. 1982.
吳坤安. 傷寒指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38. Li Chan original work. Jin JP trans.. (Chinese-Korean new translation) Pyeon Ju Ui Hak Ip Mun. Seoul. Publisher BeobInMunHwaSa. 2009.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39. Kim KS, Jo HJ, Kim JB. Comparison reference books and details on text of

- Yukkyoung(六經) in UihakYimmun-Sanghanpyun(醫學入門·傷寒篇).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 21(2).
- 김경석, 조학준, 김정범. 『醫學入門·傷寒篇』 중 「六經」條의 引用書와 내용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2).
40. Kim SU. The research on the reference books of 「the chapter of First symptom (初證)」 in 『The part of Cold damage in Uihakipmun(醫學入門·傷寒篇)』.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4. 27(1).
- 김상운. 『醫學入門·傷寒篇』 중 「初證」의 引用書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
41. Jo HJ. The Origin and Changes of True-cold Damage(正傷寒) in Introduction to Medicine(醫學入門).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2).
- 趙學俊. 『醫學入門·傷寒篇』 編制 중 正傷寒의 명칭, 병명분류의 기원과 그 후 변화.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2).
42. Kim SU. A study on the History of Yusanghan and the Types.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3. 17(3).
- 김상운. 類傷寒의 來歷과 그 種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진단학회지. 2013. 17(3).
43. Chen BC. Document research on parenteric fever. master's thesis from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2006.
- 陳寶蒼. 類傷寒의 文獻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44. Zhu XJ. Study on symptoms and remedies of para-cold damage in 『Shanghanzabinglun』. master's thesis from Hebei Medical University. 2011.
- 朱小靜. 『傷寒雜病論』中類傷寒病證治의 研究. 河北醫科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45. Wang Y. TaiPingShengHuiFang. Zhonghauyidian(Traditional Chinese Edition)[CD-ROM]. Shanghai.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2003.
- 王佑. 太平聖惠方. 中華醫典(繁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46.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ictionary. Seoul. Jeongdam Publishing Co. 2010. NAVER. [Cited at 4th Jul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2312&cid=51276&categoryId=51276>
- 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10. NAVER 검색.
47.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Cited at 4th Jul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www.koreantk.com/ktkp2014/disease/disease-view.view?disCd=D0007769>
- 한국전통지식포털.